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멸망의 도시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살던 사람에게 전도자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천로역정의 한 장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8 예일프라자 501호 길목교회 gilmokchurch@gmail.com

제253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 WAY NEWS

주후 2025.6.8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전임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협력목사: 김홍현
협력목사: 천호림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여성은
기타: 조성권
드럼: 김상진

홈페이지

theway.news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C G/B Am7 C/G F A7/E Dm7 G7 C G/B Am7 C/G Fmaj7 G7 C

주님의성 - 령 지금 이 곳 에 임 - 하 소 서 임하소 서

Am7 Em7 F G/F Em7 Am7 Dm7 G7 C Am7 F G7 C

할렐 루야 할 - 렬 루야 할 렬 - 루 - 야 할렐 루야

성서교독 이사야 55장 다같이

인도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성도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도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성도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도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성도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도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성도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인도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성도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인도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성도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인도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도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 주안에서 거듭난 생명,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말씀읽기.....누가복음 15:11-32.....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나눔..... 이길주 목사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주신 은사로 사역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말씀묵상

성경말씀 새한글성경

(누가복음 15:11~32, 새한글성경) (11)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12) 그 가운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13)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 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 버렸어요. (14)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 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15)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럽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7)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 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18)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19)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 주어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25)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26)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27)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29)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31)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32)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던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수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전임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이건명
협력목사	천호림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여성은, 정지혜	기타	조성권
드럼	김상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전 감사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아 어수선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너그러이 이해해주시시오 ^^

점심식사 섬김

매월 2,4주는 비빔밥으로 섬겨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정성스런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기도

6월 한달간 금요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8시에 이곳에서 기도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저녁8시 예배당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창립5주년 감사 주일/ 이전감사 예배

6월29일 주일은 창립5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울러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한 것에 감사하여 여러 감사한 분들을 초청하여 이전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오전10:30 모임>, <오후 2시 예배>로 드립니다.

협력목사 부임

천호림 목사님을 길목교회의 협력목사로 초빙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길목교회가 더욱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사역자 지정

길목교회 청년부서를 맡아 사역할 담당사역자가 정해졌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멋진 사역을 감당해가실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청년들은 반드시 청년사역자들을 만날수 있게 안내해주십시오.

정: 김상진 전도사 부: 최경혜 사모 협력: 전정민 전도사

코너스톤 학부모 모임

예배 마친 후 코너스톤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전정민 전도사님 안내에 따라 모여주세요.

전교인 청소

다음주 오후 모임 마친 후 전교인 청소가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어보아요~